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06월 15일

ISSN 1976-0507 Vol. 3 No. 21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이 승 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sslee@kiep.go.kr, Tel: 3460-1235)

이 장 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팀장 (cklee57@kiep.go.kr, Tel: 3460-1070)

배 승 빈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sbpae@kiep.go.kr, Tel: 3460-1057)

■ 2009년 1분기 중국경제는 투자지출 주도의 내수 증가로 6.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소비 증가세 둔화와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조 위안 경기부양책에 의한 정부부문 위주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수개월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신규 대출 증가, 자동차판매 증가,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상승 등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공업생산 증가율 둔화, 전력발전 및 전력소비 증가율 감소를 비롯하여 금년 4월까지 국유기업의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2.3% 감소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지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불안요인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1분기 경제지표 발표 후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 및 비관적 전망이 혼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망치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인 6.1%를 상회하고 있으며, 기존 경기부양책을 보완하는 추가 대책의 시행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이 예상됨.

- 단, 일부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것 이외에도 가계 소비지출 확대 및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움.

-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으로 해외수요의 확대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회복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1. 최근 중국경제 동향

■ 투자 급증이 1분기 경제성장을 주도

- 소비 증가세 둔화 및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투자 급증의 영향으로 2009년 1/4분기 6.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2/4분기 14%를 정점으로 2008년에는 분기별로 10.6%, 10.1%, 9.0% 및 6.8%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6.1%로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표 1.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4월	4월
GDP(10억 위안)	18,322	21,192	25,731	30,067	6,347	7,125	7,330	9,264	6,575	-	-
GDP(%)	10.4	11.6	13.0	9.0	10.6	10.1	9.0	6.8	6.1	-	-
소매판매(%)	12.9	13.7	16.8	21.6	20.6	22.2	23.2	20.6	15.0	15.0	14.8
고정자산투자 ¹⁾ (%)	25.7	24.0	24.8	25.5	24.6	26.3	27.0	25.5	28.8	30.5	-
소비자물가(%)	1.8	1.5	4.8	5.9	8.0	7.8	5.3	2.5	-0.6	-0.8	-1.5
수출(%)	28.4	27.2	25.7	17.2	21.4	22.4	23.0	4.3	-19.7	-20.5	-22.6
수입(%)	17.6	20.0	20.8	18.5	28.6	32.4	25.7	-8.9	-30.8	-28.5	-23.0
총통화(%)	16.3	16.9	16.7	17.8	16.3	17.4	15.3	17.8	25.5	2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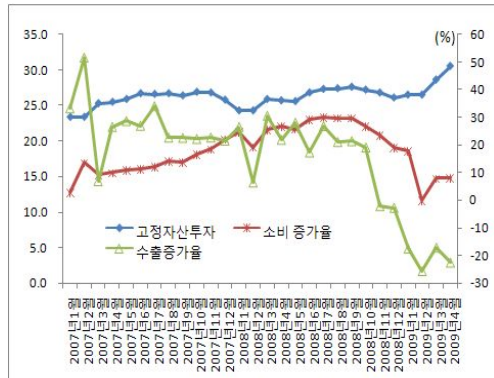
주: 1)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누계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인민은행.

- 2009년 1/4분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2%포인트 상승한 28.8%를 기록했으며, 1~4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3조 7,082억 위안(약 5,42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포인트 상승한 30.5%의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석탄채굴업, 철도운수업, 비금속 채굴·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36.6%, 94.2%, 58.6%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1/4분기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9.7% 및 30.8% 감소하였으며,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년동기대비 5.6%포인트 하락한 15% 증가에 그침.
- 4월 중 수출, 수입도 각각 -20.5% 및 -28.5%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소비부문의 경우 동비 14.8% 증가에 그침.
- 단, 월별로 본 소매판매 증가율은 작년 7월 23.3%에서 금년 2월 11.6%까지 둔화되었으나 3월 14.7%, 4월 14.8%로 상승하여 다소 회복되는 기미가 있음.
- 2009년 1~4월 중 도시지역의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데 그친 반면 농촌지역의 소비지출은 동비 16.7%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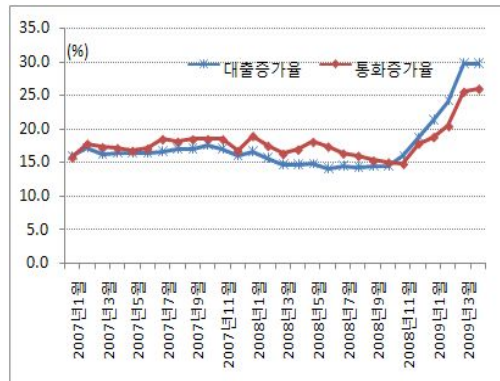
- 특히, 가구류(22.8%), 화장품(18.2%), 자동차(18.5%)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함.
- 농촌지역에 대한 가전하향과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조치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월별 고정자산투자, 소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그림 2. 대출 및 통화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대출증가로 인한 유동성 확대

- 중국의 대출 및 통화 증가율은 작년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약 1.5~2배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1~4월 중국의 총통화(M2)공급은 54조 480억 위안(약 7조 9,078억 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9.1%포인트 상승한 26%의 증가율을 기록함.
 - 같은 기간 중국의 대출은 35조 5,500억 위안(약 5조 2,013억 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15%포인트 상승한 2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정부의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증가율의 감소가 수출증가율을 상회, 무역흑자 증가

- 2009년 1~4월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0.5%, 28.5% 감소하였으나, 수입증가율 감소가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30.1%(175억 달러) 증가한 756억 달러를 기록함.
-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 한국, 독일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각각 15.7%, 18.9%, 31.7%, 17.6% 감소하며 수출 감소를 주도하였으며, 수입한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비중(2009년 1~4월 기준 약 47.6%)이 높은 구조로 인해 수입증가율 역시 지속 감소하고 있음.

표 2. 중국의 주요 대외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4월	4월
교역액	14,221	17,607	21,738	25,611	5,706	6,632	7,326	5,947	4,287	5,994	1,707
증가율(%)	23.2	23.8	23.5	17.8	24.7	26.7	24.2	-1.5	-24.9	-24.3	-22.7
수출액	7,620	9,691	12,180	14,293	3,061	3,607	4,080	3,545	2,456	3,375	919
증가율(%)	28.4	27.2	25.7	17.2	21.4	22.4	23.0	4.3	-19.7	-20.5	-22.6
수입액	6,601	7,916	9,558	11,318	2,645	3,025	3,246	2,402	1,831	2,619	788
증가율(%)	17.6	20.0	20.8	18.5	28.6	32.4	25.7	-8.9	-30.8	-28.5	-23.0
무역수지	1,019	1,775	2,622	2,975	416	582	834	1,143	625	756	131
외환보유고	8,189	10,663	15,282	19,460	16,822	18,088	19,056	19,460	19,537	-	-
FDI 실행액	724.1	727.2	835.2	1,083.0	274.1	249.8	219.8	339.3	217.7	276.7	58.9
환율(위안/\$, 평균)	8,1922	7,9748	7,6098	6,9483	7,1649	6,9581	6,8416	6,8393	6,8359	6,8348	6,8317

자료: 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중국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감소

- 2009년 1~4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6,24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4.2% 감소하였으며, 투자실행액은 21% 감소한 276.7억 달러를 기록함.
-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홍콩(2009년 기준 비중 46.5%), EU 주요 15개국¹⁾(비중 6.1%), 일본(비중 4.7%), 미국(3.3%), 한국(3.2%)의 1~4월 중 대중국 투자가 각각 14.8%, 8%, 14.9%, 25.1%, 28.4% 감소함.

■ 외환보유고 증가 추세 둔화

- 2009년 1분기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 9,53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15억 달러, 연초대비 77억 달러 증가함.
- 2008년 2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4개 분기 동안 분기별 증가액 추이가 각각 1,266억 달러, 968억 달러, 404억 달러, 77억 달러로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특히 금년 1분기 증가분인 77억 달러는 같은 기간 무역흑자 625억 달러와 FDI 유입액인 217.7억 달러의 합계인 842.7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
- 이러한 외환보유고 증가 추세 둔화는 핫머니 유출 외에 수출회사 및 은행의 미국달러화 보유규모 증가, 중국의 해외투자 증가, 외국계 기업의 철수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1) 중국에 투자한 EU 주요 15개국은 벨기에,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을 지칭.

2. 중국경제 주요 이슈

■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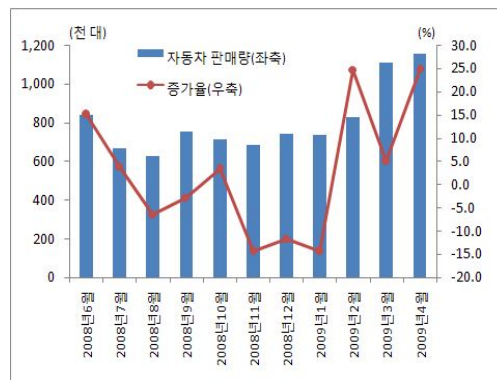
-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 5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3월과 4월에는 50을 상회함.²⁾
 - 작년 9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11월 38.8의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 추세에 있음.

그림 3.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월별 추이



자료: CEIC.

그림 4. 중국의 월별 자동차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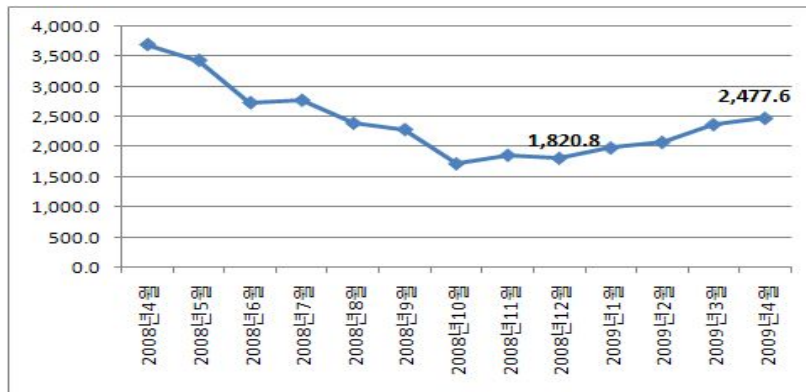


자료: CEIC.

-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기록하던 중국의 자동차판매 증가율이 금년 2월부터 약 25%대로 상승하여, 미국을 추월해 자동차 판매량 세계 최대를 기록함.
 - 2008년 8월에 마이너스 증가율(-6.3%)을 기록한 후 금년 1월까지 저조하던 중국의 자동차판매 증가율이 금년 1월 -14.4%에서 2월에 24.7%의 높은 증가세로 반전하여 3월 5%, 4월에는 25%로 상승함.
- 은행 신규대출은 금년 1/4분기에 4.6조 위안으로 작년 1년의 신규대출액을 초과, 급상승하였으며 상하이종합주가지수도 4월 말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약 36% 상승함.
 - 2009년 4월 중국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477.6포인트로 2008년 12월의 1,820.8포인트보다 36.1% 상승함.

2)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50 이상일 경우 경기확장을 시사.

그림 5. 월별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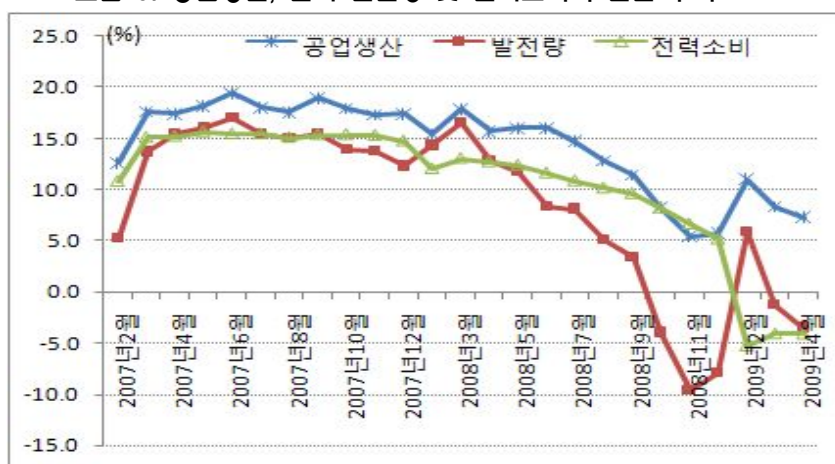


자료: CEIC.

■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업생산과 전력발전량 증가율은 금년 2월 각각 11.5%, 5.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각각 8.3%, -1.3%)과 4월에는(각각 7.3%, -3.5%) 다시 감소하고 있음.
- 공업생산액은 2008년 12월 5.7%에서 금년 1~2월 11.0%로 상승하였으나, 3월에는 8.3%, 4월에 7.3%로 소폭 둔화됨.
- 특히 전력소비 증가율은 2월(-5.2%)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공업용 전력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력소비 감소는 곧 공업생산의 하락을 의미함.

그림 6. 공업생산, 전력 발전량 및 전력소비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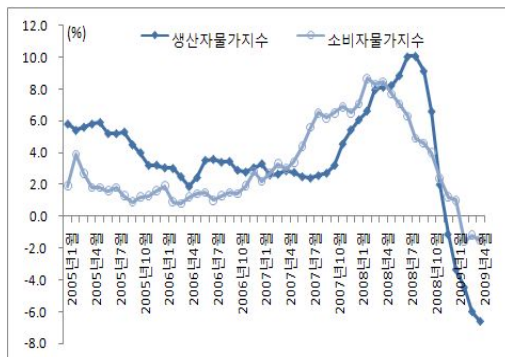


자료: CEIC.

- 2009년 1~4월 중국 국유기업 순이익은 3,23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 9,789억 위안으로 동비 7.3%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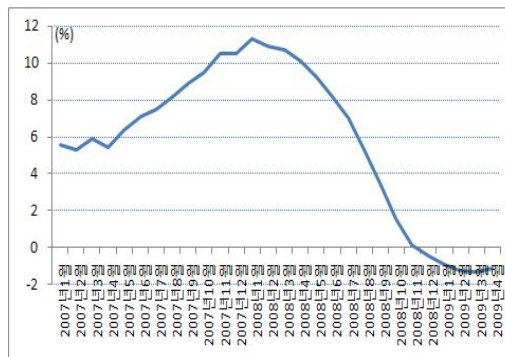
- 경기부양책에 의한 투자지출의 대부분이 인프라, 석유화학, 기계류 등의 대형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 및 수출 위주의 민간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공식 실업률은 작년 4.2%, 금년 3월 4.3%로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실업률은 7~10%로 추정되고 있으며, 농촌 잉여 노동력을 감안할 경우 약 20%로 추정됨.
- 중국 사회과학원이 도시지역 인구 7,000명에 대한 샘플조사를 통해 추측한 바에 따르면 7,000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2,288명이며 그 중 실업자는 215명으로 실업률은 약 9.4%로 추정되고 있으며,³⁾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소득 및 소비지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8월(10.1%) 이후 급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작년 2월 8.7%를 기록한 이래 지속 하락하고 있음.
- 생산자물가지수는 금년 1~4월에 각각 -3.3%, -4.5%, -6.0% 및 -6.6%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금년 2월 -1.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3월에 -1.2%로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4월에는 -1.5%를 기록함.

그림 7.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8. 중국 부동산가격지수 추이



자료: CEIC.

- 2008년 1월 11.3%를 정점으로 급락한 부동산가격지수는 금년 1~4월 동안 0.9%, 1.2%, 1.3%, 1.1%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거래제한 조치에 의한 것이며 2010년에는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3) 第一財經日報, '人社部釋惑中國社會科學院報告9.4%失業率成因', 2009.1.21

3. 향후 전망

■ 경기부양책 효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 예상

- 1분기 지표 발표 후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기관이 있는 반면 하향조정한 전망기관도 있어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 및 비관적 전망이 혼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망치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인 6.1%를 상회함.
-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투자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기존 부양책을 보완하는 수준의 추가 대책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서 3분기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표 3. 주요 기관의 중국경제 전망

	IMF	GS	MS	OECD	GI	UBS	중국사회과학원
2009	6.7→6.5	6.0→8.3	6.1→7.0	6.3	6.6	6.5→7.5	8.3
2010	8.0→7.5	10.9	-	8.5	8.1	-	-

주: IMF(2009.4), GS(Goldman Sachs, 2009.4), MS(Morgan Stanley, 2009.4), OECD(2009.3), GI(Global Insight, 2009.5), UBS(2009.4), 중국사회과학원은 2009년 4월 전망치임.
자료: 각 기관 사이트.

- 중국정부는 기존의 인프라 투자 확대 위주의 경기부양책 외에 수출지원 정책 및 내수 부양을 위한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조치⁴⁾를 실시하기로 함.
 - 수출 하락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수출신용보험의 담보범위 및 담보한도 확대, 무역관련 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제품 검사주기 단축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임.

■ 단, 경기회복의 지속성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울 듯

-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 및 물가 하락세 지속, 부동산가격지수 지속 하락 등 일부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가계 소비지출 확대 및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움.

4) 중국정부는 농업용 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소형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10%에서 5%로 인하는 제도와 농민이 가전하향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판매가의 13%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전하향(家電下鄉) 정책을 이미 시행해왔음. 이번에 실시되는 추가적인 조치로 구형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현행 10억 위안에서 50억 위안으로 확대하는 자동차 구매촉진 조치와 가전제품 교체 시 보조금으로 20억 위안을 배정하여 베이징, 상하이 등 9개 지역에서 TV, 냉장고 등 5대 가전제품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1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지역에 대한 가전제품 소비확대 조치가 있음.

-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으로 해외수요 확대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인 4.3%(금년 3월)보다 높은 9~10%로 추정되고 있는 등 가계 소비 부진 가능성이 높은 편임.

■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

- 중국의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 안에 중국의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중국에서 부품 및 소재로 사용되는 중간재 위주(2008년 기준 77.8%)인데다가, 대중국 수출의 54.3%가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감소는 곧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초래함.

표 4. 월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및 중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2008년					200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20일
한국의 대중 수출	19.3	15.0	-3.5	-33.3	-35.4	-38.6	-13.4	-22.2	-19.0	-22.8
중국 수출	21.1	21.4	19.1	-2.2	-2.8	-17.6	-25.7	-17.3	-22.7	-

자료: 무역협회 한국 및 중국무역 통계, 5월 1~20일 수치는 지식경제부 5월 수출입동향 자료에서 인용한 잠정치임.

- 단, 대중국 수입증가율 감소가 수출증가율 감소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금년도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45~1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⁵⁾

5) 2009년 1~4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3.4%, 33.9% 감소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대중국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3.5억 달러 증가한 69.2억 달러를 기록함.